

經穴歌賦 중分寸歌에 대한 연구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姜棟允¹ · 趙學俊¹ *

Study on the Bunchon-ga(分寸歌) in Kyeonghyeolgabu(經穴歌賦)

Kang Dong-yoon¹ · Jo Hak-jun¹ *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After having comparison, the Bunchon-ga in nine books - 『Chimguchwiyeong(鍼灸聚英)』, 『Nengmunjeonsudong-injihyeol(凌門傳授銅人指穴)』, 『Chingumundae(針灸問對)』, 『Gyeongrakgo(經絡考)』, 『Gyeongrakhoepyeon(經絡匯編)』, 『Geumchimbijeon(金針秘傳)』, 『Jagusimbeop-yogyeeol(刺灸心法要訣)』, 『Chimgubongwon(鍼灸逢源)』, 『Chingusinseo(鍼灸神書)』, and invested the difference based on 『Chinguhak(鍼灸學)』,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 I got some conclusion like below.

Two kinds of Bunchon-ga are similar in 『Chimguchwiyeong』, 『Nengmunjeonsudong-injihyeol』, and also in 『Gyeongrakgo(經絡考)』, 『Gyeongrakhoepyeon(經絡匯編)』, and 『Geumchimbijeon(金針秘傳)』

Bunchon-ga of twelve meridian is different from their order - Stomach meridian(胃經), Bladder meridian(膀胱經), Kidney meridian(腎經), Triple Energizer meridian(三焦經), and Gallbladder meridian(膽經).

In nine kinds of Bunchon-ga, missing acupuncture points(漏落穴) are generally located on the first line of Bladder meridian(膀胱經) - from Daejeo(大杼) to Baekhwansu(白環俞), and Pungsi(風市), Haegye(解谿), Yangsi(羊矢), Geummaek(急脈) are not appeared in them, Hyeopdang(脇堂), Michung(眉衝), Yanghyeol(陽穴) are recorded.

There are some parts adapted different way of proportional bone chon - from Yanggok(陽谿) to Gokji(曲池) in Large Intestine meridian[大腸經], from Sanggu(商丘) to Umreungcheon(陰陵泉) in Spleen meridian[脾經], and from Oegwan(外關) to Sadok(四瀆) in Triple Energizer meridian[三焦經].

The acupuncture points explained by structure, there are many different finger chons between some books.

Bunchon on breast and abdomen, is generally explained by vertical, horizontal finger chon based on Governor vessel[任脈], vertical explanations of each book have little difference opinions, but horizontal have many.

Especially, the locations of Eunmum(殷門), Bukeuk(浮郤) and Wiyang(委陽) are extremely different from 『Chinguhak(鍼灸學)』, and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Key Words : Bunchon-ga(分寸歌), Gyeongyeolgabu(經穴歌賦), Proportional bone chon(骨度法)

I. 緒論

* 교신저자 : 趙學俊. 충북 제천시 신월동 579번지,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E-mail : johohun@kornet.net Tel: 043-649-1347.
Fax: 043-649-1702.
접수일(2009년 7월 22일), 수정일(2009년 8월 7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14일)

최근에 鍼灸의 우수한 치료효과가 동서양으로 널리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의 傳統醫學이 서로 유사하지만 독자적인 방면으로 발전

되어왔기에 鍼灸學 역시 三國이 표준화되지 않고 慣習의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의학계는 표준화의 기초 작업으로 經穴 位置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에 와서야 동양의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한·중·일 3개국이 중심이 되어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¹⁾을 편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작업은 3개국의 經穴位置의 표준화에 목표를 두었기에 문헌 근거나 임상효용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經穴歌賦는 鍼灸 치료에 사용되는 經穴의 이름과 循行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도록 시(詩)의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經脈의 循行部位와 方向에 대한 내용을 담은 循行歌, 각 經脈에 속한 經穴의 명칭을 담은 經穴歌, 그리고 각 經穴의 位置를 담은 分寸歌 등 3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

예로부터 鍼灸를 施術하는 자가 반드시 공통적으로 經穴歌賦를 숙지해왔기 때문에 그 經穴歌賦가 현재와 같은 의미의 標準穴位를 규정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分寸歌에 대한 연구가 經穴位置의 標準에 대한 문헌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經穴歌賦는 비록 『鍼灸學』에서 原文을 소개하고 있으나²⁾ 해석이나 번역을 가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한편 經穴歌賦 중 循行歌와 經穴歌에 대해서 필자가 앞서 연구, 발표한 것³⁾ 이외에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추가 연구가 없으며, 分寸歌에 대한 연구도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필자는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經穴歌賦가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 鍼灸專門書마다 약간씩 차이점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11개 한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인 『鍼灸學』에서의 기술 내용과도 다른 점

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鍼灸聚英』, 『凌門傳授銅人指穴』, 『針灸問對』, 『經絡考』, 『經絡匯編』, 『金針秘傳』,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鍼灸神書』의 9가지 서적들의 分寸歌에 나타난 穴位를 懸吐·翻譯하고 比較·分析하였다. 다만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懸吐와 解釋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더불어 『鍼灸學』 및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과 비교하여 몇 가지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한다.

II. 本論

1. 『鍼灸聚英』·『凌門傳授銅人指穴』의 分寸歌 比較

두 서적이 다른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글자가 다르지만 同一한 뜻이거나, 音韻의 차이 그리고 주석을 더한 경우.

많은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2) 經穴의 순서가 다른 경우.

胃經의 經穴순서 중에서 『鍼灸聚英』에서는 ‘承泣·四白·巨膠·地倉·大迎·頰車·下關·頭維·人迎’으로 되어 있고, 『凌門傳授銅人指穴』에서는 ‘頭維·下關·頰車·承泣·四白·巨膠·地倉·大迎·人迎’으로 되어 있다.

膽經의 經穴순서 중에서 『鍼灸聚英』에서는 ‘懸厘·懸顛·額厭’으로 되어 있고, 『凌門傳授銅人指穴』에서는 ‘額厭·懸顛·懸厘’로 되어 있다.

3) 經穴이 漏落(補充)된 경우.

『鍼灸聚英』에 ‘督俞·氣海俞·關元俞’가 없다.

『鍼灸聚英』에 ‘水泉’이 漏落되었다.

『鍼灸聚英』에 ‘脇堂’과 ‘風市’에 대한 언급이 없다.

『鍼灸聚英』에 ‘羊矢’에 대한 언급이 없다.

4) 異名으로 쓴 경우.

『凌門傳授銅人指穴』의 ‘聽耳宮’은 ‘聽宮’의 異名 또

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2)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3) 姜東允, 趙學俊, 金昊顯. 十二經脈의 循行歌와 經穴歌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2).

는 誤記로 보인다.

『凌門傳授銅人指穴』의 ‘後關’은 ‘石關’의 異名이다.

『凌門傳授銅人指穴』의 ‘顛顛’은 ‘顛息’의 異名이다.

『凌門傳授銅人指穴』의 ‘膠禾’는 ‘和膠’의 異名이거나 誤記로 보인다.

5) 誤記인 경우.

『鍼灸聚英』의 ‘漏谷一寸’은 ‘漏谷(踝上)六寸’의 誤記이다.

『凌門傳授銅人指穴』의 ‘五里肘下三寸’는 ‘五里肘上三寸’의 誤記이다.

『凌門傳授銅人指穴』의 ‘頭維本神五寸’은 ‘頭維本神寸五’의 誤記이다.

『凌門傳授銅人指穴』의 ‘氣戶·庫房·屋翳·膺窗·乳中·乳根, 各一寸’은 ‘氣戶·庫房·屋翳·膺窗·乳中·乳根, 各一寸六’의 誤記이다.

『凌門傳授銅人指穴』의 ‘上膠下膠中與下’는 ‘上膠次膠中與下’의 誤記이다.

『凌門傳授銅人指穴』의 ‘五里氣衝四寸半’은 ‘五里氣衝內寸半’의 誤記이다.

『凌門傳授銅人指穴』의 ‘日月京門二寸半’에서 ‘京門’은 ‘期門’의 誤記이다.

『凌門傳授銅人指穴』의 ‘五位’는 ‘五會’의 誤記이다.

6) 分寸이 다른 경우.

『鍼灸聚英』에 ‘大迎曲頰前寸三’으로 되어있고, 『凌門傳授銅人指穴』에 ‘大迎曲頰前二寸’으로 되어 있다.

『鍼灸聚英』에 ‘陷谷內庭後二寸’으로 되어있고, 『凌門傳授銅人指穴』에 ‘陷谷內庭後寸半’으로 되어 있다.

『鍼灸聚英』에 ‘大杼大椎’로 되어있고, 『凌門傳授銅人指穴』에 ‘第一大杼’으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두 서적의 分寸이 다른 穴位는 3곳이고, 經穴의 순서가 다른 곳이 2곳이다. 經穴이 漏落된 것은 모두 『鍼灸聚英』이었다. 따라서 두 서적은 동일한 서적을 底本으로 삼았거나, 『凌門傳授銅人指穴』이 『鍼灸聚英』을 底本으로 하여 누락된 經穴을 보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經絡考』·『經絡匯編』·『金針秘傳』의 分寸歌 比較

세 서적이 다른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글자가 다르지만 同一한 뜻이거나, 音韻의 차이 그리고 주석을 더한 경우.

많은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2) 經穴이 漏落(補充)된 경우.

『經絡考』와 『經絡匯編』에는 ‘天膠’가 없다.

3) 異名으로 쓴 경우.

『經絡考』의 ‘太一’은 ‘太乙’의 異名이다.

『經絡考』의 ‘束脈’은 ‘束骨’의 異名이거나 誤記이다.

『經絡考』와 『金針秘傳』에서 ‘輔陽’은 ‘附揚’의 異名이다.

『經絡匯編』의 ‘陷骨’은 ‘陷谷’의 異名이다.

『金針秘傳』의 ‘然骨’은 ‘然谷’의 異名이다.

4) 誤記인 경우.

『經絡考』의 ‘偏曆腕後二寸’은 ‘偏曆腕後三寸’의 誤記이다.

『經絡考』의 ‘第一天柱’는 ‘第一大杼’의 誤記이다.

『經絡考』의 ‘復溜踝上前一寸’는 ‘復溜踝上初二寸’의 誤記이다.

『經絡考』의 ‘帶脈章門下十八’은 ‘帶脈章門下寸八’의 誤記이다.

『經絡考』와 『經絡匯編』의 ‘白環二十椎下’는 ‘白環廿一椎下’의 誤記이다.

『經絡考』와 『經絡匯編』의 ‘天泉曲腋下三寸’는 ‘天泉曲腋下二寸’의 誤記이다.

『經絡考』와 『金針秘傳』의 ‘踝上五寸地機’는 ‘漏上五寸地機’의 誤記이다.

『經絡匯編』의 ‘孔最腕上七寸’은 ‘孔最腕上七寸’의 誤記이다.

『金針秘傳』의 ‘陰市膝下’는 ‘陰市膝上’의 誤記이다.

『金針秘傳』의 ‘太陽之後少陰前’은 ‘太陰之後少陰前’의 誤記이다.

『金針秘傳』의 ‘五樞章下寸八’은 ‘四八’의 誤記이다.

5) 分寸이 다른 경우.

『經絡考』와 『經絡匯編』에 ‘扶突天突旁三寸’으로 되어있고, 『金針秘傳』에 ‘扶突天突旁五寸’으로 되어 있다.

『經絡考』와 『金針秘傳』에 ‘本神庭旁二寸’으로 되어있고, 『經絡匯編』에 ‘本神庭旁三寸’으로 되어 있다.

6) 『經絡考』, 『經絡匯編』, 『金針秘傳』이 동일한 底本으로 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足少陽膽經에서 ‘髮上一寸當陽穴’에 대한 언급은 『經絡考』, 『經絡匯編』, 『金針秘傳』 모두에서 동일하다. 다른 分寸歌에는 없는 내용으로 上記한 세 서적의 分寸歌가 동일한 서적을 底本으로 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세 서적의 分寸이 다른 穴位는 2곳이고, 經穴의 순서가 다른 곳은 없다. 經穴이 漏落된 것은 『經絡考』, 『經絡匯編』에 1곳이 있다. 또한 誤記가 『經絡考』에 많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經絡考』, 『經絡匯編』과 『經絡考』, 『金針秘傳』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다. 또한 ‘陽穴’이라는 奇穴이 세 서적에 공통으로 들어간 것을 보건데 세 서적은 동일한 서적을 底本으로 삼았거나, 『經絡匯編』이 『經絡考』를, 『金針秘傳』이 『經絡考』과 『經絡匯編』을 底本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十二經脈의 分寸歌

1) 手太陰肺經

(1) 中府·雲門의 分寸

① 中府와 雲門 사이의 分寸은 2가지 견해로 나뉜다. 『鍼灸聚英』, 『鍼灸問對』, 『經絡考』에서는 ‘1寸’이라 하였고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에서는 ‘1寸6分’이라 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의 근거는 任脈의 分寸歌에서 찾을 수 있다.

『鍼灸聚英』

“中庭臚中寸六分. 臚中兩乳中間看. 玉堂紫宮及華

蓋. 相去各寸六分算. 華蓋璿璣一寸量. 璿璣突下一寸當.”⁴⁾

『鍼灸問對』

“中庭臚中寸六分. 臚中兩乳中間存. 玉堂紫宮及華蓋. 相去各一寸六分. 華蓋璿下一寸量. 璿璣突下一寸當.”⁵⁾

『經絡考』

“中庭臚下寸六取. 臚中却在兩乳間. 臚上寸六玉堂主. 臚上紫宮三寸二. 臚上華蓋四八舉(四寸八分). 臚上璿璣五寸八. 璿上一寸天突起.”⁶⁾

『刺灸心法要訣』

“中庭臚下寸六取. 臚中却在兩乳間. 臚上寸六玉堂主. 臚上紫宮三寸二. 臚上華蓋四八舉(四寸八分). 臚上璿璣五寸八. 璿上一寸天突起.”⁷⁾

『鍼灸逢源』

“中庭臚(中)下寸六取. 臚中正在兩乳間. 臚上一寸六分起. 玉堂紫宮華蓋關(自臚中至華蓋四穴各去一寸六分, 共得四寸八分). 璿璣臚上六寸四分(舊云五寸八誤). 璿上寸六天突是.”⁸⁾

分寸歌의 原文에서 氣戶(胃經으로 璿璣旁4寸)旁2寸, 璿璣旁6寸으로 雲門을 설명하였듯이 中府와 雲門은 任脈의 華蓋와 璿璣의 分寸法에 의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刺灸心法要訣』의 任脈 分寸歌에서는 華蓋와 璿璣 사이의 分寸을 1寸間으로 기재하였는데도 肺經의 中府(華蓋旁6寸)와 雲門(璿璣旁6寸)을 1寸6分으로 기재하고 있다. 『刺灸心法要訣』은 시대적으로 華蓋·璿璣·天突 사이의 分寸을 1寸 또는 1寸6分으로 혼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장 후대의 서적인 『鍼灸逢源』에서 以前の 華蓋·璿璣·天突 사이의 分寸을 1寸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모

4)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24.
5) 汪機 著. 裘沛然 編. 鍼灸問對·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6)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7) 吳謙 著. 刺灸心法要訣·醫宗金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92.
8) 李學川 著. 裘沛然 編. 鍼灸逢源·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두 1寸 6分으로 교정⁹⁾하였다.

② 巨骨之下二骨數와 人迎之下二骨數는 둘 모두 두 번째 肋骨를 설명한 것이다. 다만 巨骨에 대한 쓰임에는 차이가 있어서 『刺灸心法要訣』에서는 원문에 언급된 것처럼 ‘大腸經上의 巨骨穴’을 말한 것이지만 『經絡考』 등에서 언급한 巨骨은 ‘鎖骨을 指稱’한¹⁰⁾ 것이다.

③ 『鍼灸學』에서는 1寸6分으로 기재¹¹⁾하고 있으나 圖解上¹²⁾으로는 1寸으로 표시하고 있다.

④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¹³⁾에서는 1寸으로 규정하였다.

이상의 차이점은 胸部的 穴位에 속하는 胃經의 氣戶·庫房·屋翳·膺窗·乳中·乳根, 脾經의 食竇·天溪·胸鄉·周榮 그리고 腎經의 步廊·神封·靈墟·神藏·或中·俞府 등의 上下分寸이 모든 分寸歌에서 동일하게 1寸6分으로 되어있는 것과 비교된다. 胃經, 脾經, 腎經의 胸部穴位 사이의分寸이 모두 동일한 것은 肋骨를 중심으로 하여 각 肋骨 사이의分寸을 1寸6分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中府와 雲門은 任脈의 華蓋와 璇璣에 맞추어分寸이 계산되어졌기에 任脈의 胸部穴位에 대한 각 서적들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1寸과 1寸6分이라는 두 가지의分寸으로 나뉜 것이다. 이러한 모순점을 『鍼灸逢源』에서 지적하여 任脈의 胸部穴位 사이의分寸을 모두 1寸6分으로 규정하여 교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中府와 雲門 사이는 하나의 肋骨 차이가 있으므로分寸을 1寸6分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명확해 보인다.

(2) 『鍼灸神書』의 특징

『鍼灸神書』는 分寸歌 서적 중에서 유일하게 經穴의 기재 순서를 四肢端에서 體幹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體幹의 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中和醫典 CD』에 실려 있는 經穴歌賦에서 經脈의 流注를 나타내는 循行歌¹⁴⁾는 모두 『靈樞·經脈篇』¹⁵⁾의 ‘肺手太陰之脈이 起於中焦하여 肝足厥陰之脈이 다시 上注肺’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經穴名을 내용으로 하는 經穴歌는 그 起始穴과 終止穴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는 四肢末端에서 起始하여 體幹에서 終止하는 經穴歌와 둘째는 手太陰肺經의 中府에서 시작하여 如環無端하게 四肢와 體幹을 서로 循環하여 足厥陰肝經의 期門으로 끝나는 經穴歌다. 『鍼灸神書』는 둘째에 해당된다.¹⁶⁾

經穴의 위치를 내용으로 하는 分寸歌는 上記한 것처럼 『鍼灸神書』에서만 유일하게 經穴의 기재 순서를 四肢端에서 體幹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상을 살펴보면 經脈의 流注에 대한 내용인 循行歌는 모두 循環脈系를 따르고 있으나, 經穴의 名稱이나 위치에 대한 내용인 經穴歌·分寸歌는 向心脈系 또는 循環脈系로 서술형식이 나뉘어 있다.¹⁷⁾

14) 姜東允, 趙學俊, 金昊顯. 十二經脈의 循行歌와 經穴歌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2). p.2. “循行歌가 있는 서적은 『鍼灸大全』, 『凌門傳授銅人指穴』, 『楊敬齋鍼灸全書』, 『針灸聚英』, 『鍼灸大成』, 『刺灸心法要訣』, 『經脈圖考』의 7종이다.”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79.

16) 姜東允, 趙學俊, 金昊顯. 十二經脈의 循行歌와 經穴歌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2). p.50. “첫째에 해당하는 經穴歌에는 『鍼灸大全』, 『楊敬齋鍼灸全書』, 『鍼灸大成』 등이 있으며, 둘째에 해당하는 經穴歌에는 『凌門傳授銅人指穴』, 『鍼灸神書』, 『金針秘傳』, 『經絡匯編』, 『經絡考』, 『中西匯參銅人圖說』, 『經脈圖考』, 『針灸聚英』, 『十四經發揮』, 『刺灸心法要訣』, 『類經圖翼』, 『醫學入門』 등이 있다.”

17) 孫光洛, 朴炫局. 經脈體系의 形成과 發展에 關한 研究. 동국한의학회연구소논문집. 6(1). pp.35-66. “經脈體系는 向心脈系와 循環脈系로 大別될 수 있다.” 白裕相.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7). pp.37-56.

“經脈 流注를 循環의 經脈 流注와 一方의 經脈 流注로 分類하여, 循環의 經脈 流注에는 營氣의 循環과 衛氣의 循環이 있으며, 一方의 經脈 流注는 末端에서 營氣가 消耗되는 과정에서 精氣가 生成되어 안으로 들어와 五臟에 갈무리 되는 것”

9) 李學川 著. 裴沛然 編. 鍼灸逢源·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骨度法 중의 胸腹部折法에 “天突宛中至臍中折爲八寸, 下行一寸六分爲中庭共得九寸六分(一作八寸四分, 誤).”라고 하였다.

10) 『鍼灸學』上, 32쪽의 巨骨의 穴名解에서 ‘巨骨이란 鎖骨이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11)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8.

12)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6.

1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26.

	陽谿-偏歷	偏歷-溫溜	溫溜-下廉	下廉-上廉	上廉-三里	三里-曲池	陽谿-曲池
『鍼灸聚英』	3寸	2寸	없음	1寸	없음	2寸	+ 8寸
『針灸問對』	3寸	2寸5分	없음	1寸	1寸	3寸	+ 10寸5分
『經絡考』	2寸(3寸 ¹⁸⁾)	3寸	없음	2寸	1寸	2寸	+ 10寸(11寸)
『刺灸心法要訣』	3寸	2寸(3寸 ¹⁹⁾)	없음	2寸	1寸	2寸	+ 10寸(11寸)
『鍼灸逢源』	3寸	2寸	없음	2寸	1寸	2寸	+ 10寸
『鍼灸神書』	3寸	2-3寸	없음	1寸	1寸	3寸	+ 10-11寸

表 1. 陽谿·偏歷·溫溜·下廉·上廉·手三里·曲池의分寸

이러한 經穴歌賦의 서술형식의 차이점은 向心脈系, 循環脈系(또는 一方的 經脈流注, 循環的 經脈流注)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手陽明大腸經

(1) 陽谿·偏歷·溫溜·下廉·上廉·手三里·曲池의分寸

『鍼灸學』²⁰⁾에서는 骨度法의 기준을 陽谿穴에서 曲池穴까지를 10寸으로 하여 陽谿·偏歷·溫溜·下廉·上廉·手三里·曲池 사이의分寸을 3寸·2寸·1寸·1寸·1寸·2寸 합10寸으로 적용하고 있다.

分寸歌들에서는 陽谿·偏歷·溫溜 및 下廉·上廉·手三里·曲池 사이의分寸을 表 1.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表 1.에서 나타나듯이 溫溜와 下廉 사이의分寸은 언급이 없어 제외된 상태에서도分寸의 합이 『鍼灸聚英』²¹⁾을 제외하고 모두 10寸 이상이므로 肘腕間의 骨度法이 10寸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임이 분명하다. 『靈樞·骨度』²²⁾ 및 『鍼灸問對』, 『金鍼秘傳』,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의 骨度法²⁴⁾에서 모두 ‘肘至

腕, 長一尺二寸半’이라 하였고, 『鍼灸聚英』의 骨度法²⁵⁾에서는 ‘肘至腕, 長一尺一寸半’이라 하여 『鍼灸學』의 肘腕10寸 骨度法과는 다르다.

한편,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²⁶⁾에는 肘腕12寸의 骨度法으로 하여 3寸·2寸·3寸·1寸·1寸·2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天鼎과 扶突

『經絡考』는 ‘天鼎은 喉旁4寸, 扶突은 天突旁3寸’이라 하였고, 『刺灸心法要訣』은 ‘天鼎은 喉旁4寸(扶突下1寸), 扶突은 天突旁5寸(人迎後1寸半)’이라 하였다. 이외의 서적에서는 ‘天鼎은 缺盆之上, 扶突은 曲頰之下 1寸’이라 하여 任脈線과의 구체적인分寸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經絡考』에서 ‘扶突은 天突旁3寸’이라 하였고, 『經絡匯編』도 ‘天突旁3寸’이라 하였으며, 『金鍼秘傳』은 天突旁5寸이라 하였다. 扶突보다 아래에 있는 天鼎이 ‘喉旁4寸’이니 扶突이 天突旁 3寸 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金鍼秘傳』의 ‘天突旁5寸’의 견해가 옳다. 이것은 『刺灸心法要訣』과 동일한分寸이다.

18) 『經絡匯編』과 『金鍼秘傳』에서는 ‘三寸’이라 하였다.

19) 『刺灸心法要訣』의 주석에서 ‘三寸’이라 하였다.

20)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25-28.

21) 『鍼灸聚英』은 溫溜-下廉, 上廉-三里的分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8寸 이다. 따라서 陽谿-曲池의分寸이 10寸일 수도 있다.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109.

23) 吳國定. 內經解剖生理學. 中國. 國立中國醫藥研究所. 年度未詳. p.5.

24) 『鍼灸問對』, 『金鍼秘傳』,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의 骨度法은 『中和醫典CD』에 기록된 각각의 서적들에 기재된 내용이다. 단, 『刺灸心法要訣』은 『醫宗金鑑』(吳謙 著. 刺灸

心法要訣·醫宗金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6.)을 참고 하였다. 이하 이 서적들의 骨度法에 대한 내용의 출처는 여기에 근거한다.

25) 『鍼灸聚英』에는 骨度法에 대한 내용은 없고 ‘一周身尺寸已詳于前集『素難節要』’라 하였으나 『素難節要』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中和醫典CD』에 있는 『鍼灸聚英』보다 후대에 저술된 『鍼灸素難要旨』(高武 著. 1537年)에 기재된 骨度法으로 대신하였다. 이하 骨度法에 대한 내용의 출처는 여기에 근거한다.

2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p.36-39.

		『鍼灸聚英』	『針灸問對』	『經絡考』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胃經	氣舍	迎下夾天突	迎下夾天突	突下穴	喉下一寸(頸大筋前)	喉下一寸
	水突	頸大筋下	頸大筋前	筋前迎下	筋前人迎(頸大筋前)	筋前直迎下
	人迎	喉傍大脈	結旁寸五(矯正)	喉旁寸五	喉旁寸五	(結)喉旁寸半
大腸經	天鼎	缺盆之上	缺盆之上	喉旁四寸	喉旁四寸(缺盆上直行扶突下一寸)	頸中缺盆上
	扶突	曲頰下一寸	曲頰下一寸	天突旁五寸(矯正)	天突旁五寸 (曲頰下一寸, 人迎後一寸五分)	頰下一寸
小腸經	天窗	頰下動脈	頰下動脈	扶突後陷 (頸大筋間前, 曲頰下扶突後, 動脈應手陷中.)	曲頰動陷 (頸大筋前, 曲頰下動脈, 應手陷中)	頰下動脈
	天容	耳下曲頰後	耳下曲頰後	耳下曲頰後	耳下曲頰後	耳下曲頰
三焦經	天關	旁頰後天容	旁頰後天容	天容之後(頸大筋外缺盆上)	耳下一寸 (頸大筋外缺盆上, 天容穴後)	耳後一寸
	翳風	耳後骨陷	耳後尖角陷	耳後尖角陷	耳後尖角陷	耳後尖骨陷

表 2. 頸部に 있는 經穴의 分寸

따라서 天鼎은 分寸歌에서 설명한 전체적인 의미는 ‘缺盆之上, 結喉旁4寸, 扶突下1寸’이 되고, ‘扶突은 曲頰²⁷⁾下1寸, 天突旁5寸’이 된다. 天鼎은 結喉旁4寸에 있고, 扶突은 天突旁5寸이라 한 것은 結喉와 天突 사이는 4寸(結喉以下至缺盆中4寸²⁸⁾)이고 天鼎이 扶突 아래 1寸에 해당하는 것과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오히려 天突旁5寸은 結喉旁5寸이라야 옳은 것이다. 또한 『刺灸心法要訣』에서 天鼎을 結喉旁4寸이라 하고 扶突을 天突旁5寸이라 하면서 註釋에 人迎旁1寸5分이라 하였다. 胃經의 人迎에 대한 설명²⁹⁾을 보면 結喉旁1寸5分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扶突은 結喉旁 3寸이 되는데 이것은 天鼎이 結喉旁4寸이라 한 것과 上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頸部に 있는 經穴은 分寸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骨度法³⁰⁾의 頸部에 대한 설명이 ‘結喉以下至缺盆中4寸’의 直寸法 1가지 밖에 없고 橫寸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또한 穴位가 分寸法 보다는 經脈流注와 人迎과 頸部大筋 등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表 2.의 頸部に 있는 經穴들의 分寸歌를 살펴보면 分寸이 기재된 경우의 기준이 되는 부위는 喉傍(喉下), 天突旁, 曲頰下, 耳下(耳後)이다. 上下直寸法은 骨度法 ‘結喉以下至缺盆中4寸’에 의거하면 되고, 左右橫寸이 특별히 언급된 것이 없으나 人迎의 부위가 명확하므로 結喉에서 人迎까지를 1寸5分으로 한 것을 橫寸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人迎까지의 分寸이 1寸半이 되는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金針秘傳』, 『鍼灸逢源』에서 언급한 ‘分寸法이 없는 경우에는 中指同身寸法에 의거한다’³¹⁾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分寸法을 기준으로 頸部の 穴位를 살펴보면 胃經의 人迎穴은 天突上4寸인 結喉 옆 1寸5分에 있다. 水突은 人迎下 頸大筋前에 있고(『針灸聚英』은 頸大筋下), 氣舍는 人迎下 1寸 頸大筋前(『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이라는 견해와 人迎下 天突旁(結喉下 4寸에 해당)이라는 두 가지로 나뉜다.

大腸經의 經穴은 ‘缺盆上, 曲頰之下1寸’으로 간단히 서술한 서적과 ‘結喉旁4寸 扶突下1寸(天鼎), 天突旁5寸(扶突)’이라 구체적으로 서술한 서적이 있다.

27) 吳謙 等. 醫宗金鑑. 北京. 인민위생출판사. 1982. p.2113. “曲頰者頰之骨也. 曲如環形, 受頰車骨尾之鉤者也.”라 하였다. 즉 下頰骨의 隅角을 말한다(胃經의 大迎穴 참조)
28) 『靈樞·骨度』를 포함한 기타 分寸歌가 있는 서적의 骨度法은 동일하다.
29) 足陽明胃經 참고.
30) 『靈樞·骨度編』을 포함한 기타 分寸歌가 있는 서적의 骨度編.

31) 無名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手足尺寸及背部橫寸, 無折法之處, 乃用此法.”
李學川 著. 裘沛然 編. 鍼灸逢源·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手臂(一作足字, 誤) 尺寸及背腹橫寸, 無折法之處, 皆根據此法.”

또한 ‘結喉後旁1寸5分’로 注釋하여 天鼎이 結喉旁 4寸이라 한 것과 相沖된다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다.

小腸經의 經穴은 分寸에 대한 언급은 없이 天窓은 ‘曲頰下動脈 扶突後 頸大筋間前’이고, 天容은 ‘耳下曲頰後’로 모든 分寸歌의 의미가 거의 동일하다.

三焦經의 天牖는 ‘頸大筋外 天容後 耳後(下)1寸’이고, 翳風은 ‘耳後骨陷’으로 역시 모든 分寸歌의 의미가 같다.

이상에서와 같이 頸部의 經穴位는 分寸의 骨度法으로 언급된 경우에는 分寸이 의미하는 부위가 매우 애매하다. 오히려 각 經脈의 1)流注路線(胃經은 缺盆上에서 人迎으로 直升하여 턱으로 흐르고, 大腸經은 缺盆上에서 直升하여 曲頰(前側)으로 흐르며, 小腸經은 缺盆上에서 直升하여 耳下(曲頰後側)으로 흐르며, 三焦經은 項部에서 耳後로 흐른다.)과 2)頸大筋의 前後間 그리고 3)結喉橫線에 따른 上下 부위에 의한 설명이 더욱 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鍼灸學』³²⁾에서는 ‘結喉(甲狀軟骨)兩方 1寸5分の 頸動脈部에 人迎穴을 定하고 人迎穴 外方 1寸5分(홍쇄유돌근후연)이 扶突穴, 扶突下1寸이 天鼎, 扶突外方1寸5分이 天窓’이라 하였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³³⁾에는 天鼎은 윤상연골(cricoid cartilage) 옆 홍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uscle) 後緣(水突穴은 前緣에 있어 같은 橫線上에 있다.)에 있고, 扶突은 갑상연골(thyroid cartilage) 上緣 옆 홍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uscle) 前後緣 사이로 서술하고 있다. 간단명료하게 分寸에 얽매이지 않고 頸部의 縱軸과 홍쇄유돌근의 부위로 서 설명하였다.

3) 足陽明胃經

(1) 經穴의 서술순서의 차이

『鍼灸問對』와 『凌門傳授銅人指穴』에서는 ‘頭維·下關·頰車·承泣·四白·巨膠·地倉·大迎·人迎’으로, 『鍼灸神書』이외의 서적에서는 모두 承泣·四白·巨膠·地倉·大

32)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33-34.

3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42.

迎·頰車·下關·頭維·人迎’의 순서로 되어 있다.

(2) 大迎

頰下·曲頰前·曲頰前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모두 下顎骨의 모서리를 뜻하는 것³⁴⁾이다.

『凌門傳授銅人指穴』은 ‘曲頰前3寸’, 『鍼灸問對』은 ‘曲頰前1寸’이라 하였고 나머지 서적에서는 모두 ‘曲頰(또는 頰下)1寸3分’이라 하여 分寸이 다르다. 骨度法의 頭部折法에서 橫寸法은 『鍼灸聚英』과 『鍼灸問對』는 『靈樞·骨度』의 ‘耳前當耳門者, 廣一尺三寸. 兩顴之間, 相去七寸.’을 그대로 따랐으며, 『金鍼秘傳』·『刺灸心法要訣』·『鍼灸逢源』은 ‘眼內角至外角比为一寸, 頭部橫直寸法. 并根据此.’라 하였다. 그러나 大迎의 分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骨度法의 차이보다는 穴位가 動脈處이므로 근육의 크기나 동맥의 위치에 따라 변동이 큰 곳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鍼灸學』³⁵⁾에서는 ‘顎骨 隅角前 1寸3分으로 咬筋 부착 부위 前緣의 動脈處에서 취한다.’고 하였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³⁶⁾에서는 分寸에 대한 언급은 없고 ‘下顎角 앞쪽의 咬筋 부착부위 前陷處의 顏面動脈處’라 하였다.

(3) 水突·氣舍

『鍼灸聚英』에서만 水突을 ‘頸大筋下’라 하였고, 나머지는 ‘頸大筋前’이라 하였다. 『鍼灸學』³⁷⁾·『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³⁸⁾에서도 ‘頸大筋前’과 같은 부위로 설명하고 있다.

『鍼灸逢源』·『刺灸心法要訣』에서 氣舍의 위치를 ‘喉

34)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44.

“下顎骨 隅角前 1寸3分.”

35)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44.

3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48.

37)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48.

38)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p.50-51.

下一寸'이라고 표현한 것은 結喉와 天突間의 4寸 骨度分寸法을 적용하면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喉'는 윗부분(갑상연골) 結喉의 의미가 아니라 아랫부분의 喉頭下緣(天突上1寸)을 의미한 것이다. 『刺灸心法要訣』의 注釋에서 '頸大筋前結喉下1寸, 貼骨尖上有缺處'가 이를 적절히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水突의 注釋에서 '頸大筋前內貼氣候, 水突穴'이라고 설명한 것의 氣候 또한 喉頭下緣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의미상의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타 서적에 기재된 '(人)迎下夾天突'의 표현이 더 명확해 보인다.

『鍼灸學』³⁹⁾에서는 '天突兩方1寸5分'이라 하였고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⁴⁰⁾에서도 分寸의 표시는 없으나 같은 의미로 기재되어 있다.

(4) 氣戶·庫房·屋翳·膺窗·乳中·乳根의 分寸

『刺灸心法要訣』의 氣戶와 庫房 사이의 分寸만 1寸 이고, 나머지 모두 1寸6分이다. 中央(任脈)에서의 거리는 모두 4寸으로 서술하였다.

『鍼灸學』⁴¹⁾에서는 모두 任脈穴(璇璣·華蓋·紫宮·玉堂·膻中·中庭) 兩方 4寸이면서 각각 穴位의 거리는 1寸6分으로 서술되어 있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⁴²⁾에서는 任脈旁4寸으로 鎖骨下·1肋骨間·2肋骨間·3肋骨間·4肋骨間·5肋骨間으로 서술되어 있다.

(5) 不容·承滿·梁門·關門·太乙·滑肉門의 分寸

『鍼灸逢源』에서만 不容과 承滿 사이의 分寸을 1寸5分으로 하였고 나머지 모든 서적에서는 1寸으로 하였다.

中央(任脈)과의 橫寸은 2가지 견해로 나뉜다.

39)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48.

4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51.

41)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50-52.

4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p.52-54.

『鍼灸聚英』⁴³⁾·『刺灸心法要訣』·『鍼灸逢源』은 任脈(巨關)旁臍2寸으로 하였고, 『鍼灸問對』⁴⁴⁾·『經絡考』⁴⁵⁾는 任脈(巨關)旁臍3寸으로 하였다.

『鍼灸學』⁴⁶⁾·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⁴⁷⁾에는 中央(任脈)으로부터 2寸, 穴位間 1寸으로 되어 있다.

(6) 天樞·外陵·大巨·水道·歸來, 氣衝(氣街)의 分寸 下腹部의 骨度法⁴⁸⁾은 『鍼灸聚英』은 '天樞·橫骨6寸5分, 橫骨長6寸5分', 『鍼灸問對』는 '兩乳之間8寸'을 橫寸의 기준으로 삼고, '心岐骨下에서 臍中까지 7寸'으로 直寸의 기준으로 삼았다. 『金鍼秘傳』·『刺灸心法要訣』·『鍼灸逢源』에서는 '臍下에서 毛際曲骨穴까지 5寸', '兩乳之間8寸'을 橫寸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表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刺灸心法要訣』·『鍼灸聚英』·『鍼灸問對』는 分寸이 동일하고 臍下에서 橫骨까지 8寸으로 계산하였고, 『經絡考』에서는 『靈樞·骨度』를 따라 6寸5分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鍼灸逢源』에서는 5寸의 分寸法을 따랐다. 배꼽이하腹部의 6穴에 대한 각각 서적의 直寸은 각 서적의 骨度法에서 제시한 기준을 『鍼灸逢源』만 정확하게 따르고 있을 뿐 기타 서적에서는 따르지 않고 있다.

43) 不容을 '夾幽門一寸五'라 하였는데, 腎經分寸歌에서 幽門은 巨關 옆 5분에 있으므로 不容은 巨關旁2寸이 된다.

44) 不容을 '夾幽門寸五'라 하였는데, 腎經分寸歌에서 幽門은 巨關 옆 1寸5분에 있으므로 不容은 巨關旁3寸이 된다.

45) 不容을 '巨關旁三寸'이라 하였고, 附言하여 '却行幽門寸五(注:幽門胃經任脈二脈中)'라 하였는데 腎經分寸歌에는 幽門은 巨關 옆 5분으로 되어있으므로 錯誤임이 분명하다.

46)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52-56.

4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p.55-57.

48) 『鍼灸素難要旨』에서는 "天樞以下至橫骨長六寸半", "橫骨長六寸半"이라 하여『靈樞·骨度』를 그대로 따른다. 『鍼灸問對』에서는 "腹部兩乳之間, 爲八寸, 橫寸准此. 心蔽骨下至臍中七寸. 無蔽骨, 取心岐骨下至臍中作七寸. 直寸准此. 臍下用直寸量之."라 하였고, 『金鍼秘傳』·『刺灸心法要訣』에서는 "臍心下至毛際曲骨穴折作五寸, 橫寸以兩乳相去, 折作八寸."이라 하였고 『鍼灸逢源』에서는 "臍心下至毛際曲骨穴折爲五寸, 胸腹直寸法根據此, 橫寸法用兩乳相去折爲八寸."이라 하였다.

	『鍼灸聚英』	『針灸問對』	『經絡考』 『金鍼秘傳』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天樞	臍傍2寸	臍傍2寸	臍傍2寸	臍傍2寸	臍傍2寸
外陵	1寸	1寸	1寸	1寸	1寸
大巨	1寸	1寸	1寸	1寸	1寸
水道	3寸	3寸	2寸	3寸	1寸
歸來	2寸(臍下7寸)	2寸(臍下7寸)	2寸(臍下6寸)	2寸(臍下7寸)	1寸(臍下4寸)
氣衝	氣衝脈中央(曲骨傍3寸)	鼠上脈處(曲骨傍3寸)	鼠溪上1寸(曲骨傍4寸)	1寸(臍下8寸) 鼠溪上1寸脈處(曲骨傍2寸)	1寸(臍下5寸) (曲骨傍2寸)

表 3. 배꼽 이하 腹部的 6穴의分寸

이것은 任脈의分寸歌가 정확히 骨度法⁴⁹⁾(臍-曲骨 5寸)을 따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즉 分寸歌에서 胃經의 臍下에서 橫骨까지의分寸이 8寸 또는 6寸5分, 5寸 등으로 되어 있고, 任脈의分寸은 5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骨度法의 의미가 절대적 數值가 아니라 정확한 穴位를 취하는 것이 목적임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鍼灸逢源』에서 각 穴 사이의分寸이 1寸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현대 鍼灸學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⁵⁰⁾과

동일하다. 이는 分寸歌 중에서 가장 후대의 서적인 『鍼灸逢源』에 任脈의 陰交·石門·關元·中極·曲骨 각각 旁 2寸에 맞추어 간결하게 정리한 된 것으로 생각된다.

橫寸에 대한 특징은 『鍼灸問對』, 『經絡考』는 臍上에서 不容까지는 任脈(巨關)旁臍3寸의分寸을 적용하였으나 臍下에서 歸來까지는 다른 서적과 동일한 2寸을 적용하였다. 氣衝은 曲骨傍4寸(橫骨端)·3寸(鼠上脈中央)·2寸(鼠上脈中央·動脈應手) 등의 3가지 견해가 있다.

『鍼灸學』⁵¹⁾에서는 氣衝은 ‘曲骨穴 兩方2寸으로 動脈應手處에 取穴한다. 兩乳間8寸의 骨度法이나 恥骨(曲骨)의 橫長을 6寸5分の 骨度法으로 계산하여 曲骨穴 兩方 2寸處에서 取穴한다.’고 하였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⁵²⁾도 『鍼灸學』과 동일하다.

(7) 三里·上廉·條口·下廉·豐隆·解谿의分寸

胃經의 유주에서 豐隆은 下廉의 側外傍에 위치한다. 豐隆의 부위에 대한 각 서적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서적에서 豐隆과 解谿 사이의分寸은 ‘踝上8寸’으로 동일하나 三里·上廉·條口·下廉의分寸은 表 4.와 같이 相異하다.

49)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24.
“任脈會陰兩陰間, 曲骨臍下毛際安, 中極臍下四寸取, 三寸關元二石門, 氣海臍下一寸半, 陰交臍下一寸論, 分明臍內號神關.”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任脈會陰兩陰間, 曲骨毛際陷中安, 中極臍下四寸取, 關元臍下三寸連, 臍下二寸名石門(비전·회판;石門穴), 臍下寸半氣海全, 臍下一寸陰交穴, 臍之中央即神關.”
汪機 著, 裘沛然 編, 鍼灸問對·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會陰正在兩陰間, 曲骨臍下毛際安, 中極臍下四寸取, 石門二寸關元三, 氣海臍下一寸半, 陰交臍下一寸放, 分明臍中號神關.”
吳謙 著, 刺灸心法要訣·醫宗金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92.
“任脈會陰兩陰間, 曲骨毛際陷中安, 中極臍下四寸取, 關元臍下三寸連, 臍下二寸名石門, 臍下寸半氣海全, 臍下一寸陰交穴, 臍之中央即神關.”
李學川 著, 裘沛然 編, 鍼灸逢源·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任脈會陰兩陰間, 曲骨毛際陷中捫, 中極臍下四寸取, 三寸關元二石門, 氣海臍下一寸半, 陰交臍下一寸論, 臍之中央號神關.”

50)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56-59.
51)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59.
5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p.58-60.

	『鍼灸聚英』	『針灸問對』	『經絡考』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鍼灸神書』
足三里	3寸	3寸	3寸	3寸	3寸	3寸
上廉	3寸	3寸	3寸	3寸	3寸	3寸
條口	1寸	1寸	1寸	2寸	2寸	1.5寸
下廉	1寸	2寸	1寸	2寸(寸;1寸)	1寸	1.5寸
膝下-下廉	8寸	9寸	8寸	10寸(寸;9寸)	9寸	9寸
豐隆	下廉外1寸, 踝上8寸	下廉外1寸, 踝上8寸	膝下9寸, 下廉外, 踝上8寸	(下廉後上行) 踝上8寸	踝上8寸	踝上8寸

表 4. 三里·上廉·條口·下廉의分寸

	『鍼灸聚英』	『針灸問對』	『經絡考』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鍼灸神書』
三陰交	內踝3寸	3寸	3寸	3寸	3寸	3寸
漏谷	內踝6寸(矯正)	6寸	6寸	6寸	6寸	6寸
地機	膝下5寸	膝下5寸	漏谷上5寸(校勘)	漏谷上5寸(矯正)(膝下5寸)	膝下5寸	膝下5寸
陰陵泉	膝下內側	膝下內側	膝下內側	膝下內側	膝下內側	膝下內側

表 5. 三陰交, 漏谷, 地機, 陰陵泉의校勘

여기에서는 ‘膝以下至外踝, 長一尺六寸’⁵³⁾의 骨度法이 적용되는데 豐隆의 위치(足外踝上8寸)가 三里·上廉·條口·下廉 路線上의 外側1寸에 있으므로 『鍼灸聚英』에서는 下廉外側1寸, 『針灸問對』에서는 條口와 下廉 사이 外側1寸, 『經絡考』 下廉外側1寸⁵⁴⁾, 『刺灸心法要訣』에서는 條口外側1寸, 『鍼灸逢源』에서는 條口外側1寸이 된다.

『鍼灸學』⁵⁵⁾와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⁵⁶⁾에서는 ‘條口穴 後方1寸’이라 하여 『刺灸心法要訣』과 『鍼灸逢源』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각 穴들 사이의分寸 또한 위 두 서적과 동일하다.

(8) 解谿, 衝陽, 陷谷, 內庭

이 穴들은分寸에 의한 取穴 보다는 筋骨間에 따른 取穴이 명확하기에 각 서적간의 약간의分寸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鍼灸學』⁵⁷⁾에서는 ‘解谿, 衝陽後1寸5分’, ‘衝陽 陷

谷上3寸’, ‘陷谷, 內庭上2寸’으로 되어 있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⁵⁸⁾에서는分寸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해부학구조로서 설명하였다.

4) 足太陰脾經

(1) 商丘·三陰交·漏谷·地機·陰陵泉의分寸

四肢骨度法 中에서 膝部 以下는 ‘內輔下廉, 下至內踝, 長一尺三寸’, ‘膝以下至外踝, 長一尺六寸.’⁵⁹⁾ 등 두 경우가 있다.

表 5.는 誤記를 교정하여 정리하였는데 地機의分寸은 ‘漏谷上5寸, 膝下5寸’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膝以下에서 外踝까지 16寸’의 骨度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鍼灸學』⁶⁰⁾에서는 ‘足內輔骨下廉에서 足內踝까지를 1尺3寸의 骨度法에 의하여 三陰交(踝上3寸), 漏谷(踝上6寸), 地機(漏谷上2寸·陰陵泉下3寸·膝下5寸⁶¹⁾), 陰陵泉(足內輔骨下廉)’이라 하였다.

53) 모든 서적의 骨度法이 동일하다.

54) 원문의 膝下9寸은 直寸이 아니라 流走路線의 전체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55)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67.

5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66.

57)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67-69.

58)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p.66-67.

59) 모든 서적의分寸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60)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79-82.

61) ‘漏谷上2寸, 陰陵泉下3寸과 膝下5寸’은 ‘漏谷上4寸, 陰陵泉下3寸’이나 ‘漏谷上2寸, 陰陵泉下5寸’으로 되어야 骨度法 13寸에 부합된다. 『鍼灸學』의 혼동이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에서는 ‘三陰交(踝上 3 寸), 漏谷(踝上 6 寸), 地機(漏谷上 4 寸·陰陵泉下 3 寸), 陰陵泉(足內輔骨下廉)’으로 13 寸의 骨度法에 부합되게 하였다.

(2) 血海·箕門의分寸

四肢骨度法 中에서 橫骨法에서 膝內側部까지는 ‘橫骨上廉以下至內輔之上廉, 長一尺八寸’⁶²⁾에 해당된다.

血海는 膝臑上內廉으로 膝臑上 1 寸 또는 2 寸 또는 3 寸 등으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鍼灸學』와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에서는 모두 ‘膝臑上 2 寸’이라 하였다.

箕門은 ‘血海上 6 寸’이라는 견해와分寸은 기재하지 않고 筋肉 및 動脈處로 설명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鍼灸學』⁶³⁾에서는 ‘血海上 6 寸(膝臑上 8 寸)’으로 기재되어 있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⁶⁴⁾에서는 筋肉 및 動脈處로 설명하고 있으며 圖解上으로는 ‘膝臑上 12 寸’으로 규정하여 여러分寸歌 및 『鍼灸學』과는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3) 衝門·府舍·腹結·大橫의分寸

表 6.에서와 같이 直寸法은 모든分寸歌에서 臍에서 橫骨까지의 骨度法을 5 寸으로 적용하여 大橫下 5 寸(臍傍下 5 寸⁶⁵⁾)으로 동일하다. 上記한 胃經에서 臍下分寸이 다양하게 서술된 것과 비교된다.

각각의 穴 사이의分寸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또한 『經絡考』 肝經의 期門은 ‘臍上 6 寸 5 分 巨闕(任脈)傍 4 寸 5 分’이라 하였으니 『經絡考』의 大橫은 ‘期門下 5 寸 5 分’이므로 臍上 1 寸이 된다.

橫寸法에 대해 『鍼灸聚英』·『鍼灸問對』에서는 ‘夾臍’라고만 하여 구체적인分寸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며 『經絡考』注에서는 臍傍 4 寸 5 分, 『刺灸心法要訣』·『鍼灸逢源』에서는 ‘臍傍 3 寸 5 分’이라 하였으니 胃經의 氣衝의 側方 1 寸 5 分에 해당된다.

『鍼灸學』⁶⁶⁾에서 衝門은 ‘曲骨旁 4 寸, 大橫下 5 寸, 橫骨(腎經)旁 3 寸 5 分, 氣衝(胃經)旁 2 寸, 急脈旁(肝經) 1 寸 5 分, 府舍下 7 分으로 曲骨·橫骨·氣衝·急脈·衝門은 수평선으로 취혈한다.’고 하여 腎經·肝經·胃經·脾經의分寸을 각각 5 分·1 寸 5 分·2 寸·4 寸으로 정리하였다. 기타 각각 穴들 사이의分寸은 『鍼灸逢源』·『刺灸心法要訣』과 같다. 다만 ‘臍旁 4 寸’이라 하여 ‘臍傍 3 寸 5 分’과는 차이가 있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⁶⁷⁾은 『鍼灸學』과 동일하다.

(4) 腹哀

腹哀는 견해차가 매우 크다.

『鍼灸聚英』·『針灸問對』에서는 ‘日月去一寸半’이라 하였는데 日月은 期門下 5 分이므로 ‘期門下 5 分, 外傍 1 寸 5 分’, 또는 ‘期門下 2 寸’이 된다.

『經絡考』에서는 ‘期門下方 2 寸’이라 하였다.

『刺灸心法要訣』에서는 ‘大橫上 3 寸 5 分’이라 하였다. 동일 서적分寸歌에서 期門은 不容傍 1 寸 5 分이며 不容은 巨闕傍 2 寸이고 巨闕은 臍上 6 寸 5 分이므로 곧 期門下 3 寸이 된다.

	『鍼灸聚英』	『針灸問對』	『經絡考』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衝門	大橫下 5 寸	大橫下 5 寸	大橫下 5 寸(期門臍旁 4 寸 5 分)	橫骨兩端動(腹中旁 3 寸 5 分)	橫骨兩端動(大橫臍傍 3 寸 5 分)
府舍	大橫下 3 寸 3 分	大橫下 3 寸 3 分	大橫下 3 寸 5 分	大橫下 4 寸 3 分	大橫下 4 寸 3 分)
腹結	大橫下 1 寸 3 分	大橫下 1 寸 3 分	大橫下 1 寸 3 分	大橫下 1 寸 3 分	大橫下 1 寸 3 分)
大橫	夾臍	夾臍	期門下 5 寸 5 分(臍上 1 寸)	腹結上 1 寸 3 分	臍傍 3 寸 5 分
胃經 氣衝	氣衝脈中央(曲骨傍 3 寸)	鼠上脈處(曲骨傍 3 寸)	鼠溪上 1 寸(曲骨傍 4 寸)	鼠溪上 1 寸脈處(曲骨傍 2 寸)	(曲骨傍 2 寸)

表 6. 衝門, 府舍, 腹結, 大橫의分寸

62) 모든分寸歌의 서적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63)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84.

64)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75.

65) 『經絡考』에서 “大橫은 臍上 1 寸”이라고 하였다.

66)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85.

6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鍼灸逢源』에서는 ‘巨闕傍6寸’이라 하였다.

『鍼灸學』⁶⁸⁾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⁶⁹⁾에서는 ‘建里(任脈, 臍上3寸) 兩方 各 4寸’이라 하였다.

5) 手少陰心經

모든分寸歌의經穴分寸이 동일하다.

6) 手太陽小腸經

(1) 肩外俞·肩中俞의分寸

肩胛上廉으로 肩胛에서 大椎穴 方向으로 1寸(肩外俞), 2寸(肩中俞)의 의미는 동일하다.

橫寸의 肩外俞는 『經絡考』, 『刺灸心法要訣』에서 ‘去脊3寸’이라 하였고, 肩中俞는 『鍼灸聚英』, 『經絡考』에서 ‘大杼旁’이라 하였으나 『鍼灸逢源』, 『刺灸心法要訣』에서는 ‘大椎旁2寸’, 『針灸問對』에서는 ‘大椎旁’이라 하여 上下의分寸이 다르다.

『鍼灸學』⁷⁰⁾,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⁷¹⁾에서 ‘肩外俞는 陶道(제1胸椎下)旁3寸 즉 大杼(陶道旁1寸5分)旁1寸5分’, ‘肩中俞는 大椎(제7頸椎下)旁2寸’라고 하여 『刺灸心法要訣』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7) 足太陽膀胱經

(1) 眉衝

『鍼灸逢源』에서만 眉衝을 언급하였다.

(2) 膀胱1線과 2線의分寸

방광1線の橫寸은 『鍼灸逢源』, 『刺灸心法要訣』에서는 ‘脊中開二寸’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서적에서는 ‘夾脊開寸五’을 적용하였는데 이것은 骨度法⁷²⁾에서 제시한 脊中과 夾脊의分寸이 ‘5分’이므로 동일한分寸이다. 방광2線の分寸 또한 방광1線과 동일한 기준으로 3寸과 3寸5분으로 적용되었다. 『鍼灸問對』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除脊1寸5分, 除脊3寸’이라 하였다.

(3) 방광1線(大杼-白環俞)의 漏落 또는 補充된穴

『鍼灸聚英』에는 督俞·氣海俞·關元俞가 없다.⁷³⁾ 『針灸問對』에는 膀胱俞·中膂俞·白環俞가 없다. 『經絡考』에는 督俞·氣海俞·關元俞가 없다.⁷⁴⁾ 『刺灸心法要訣』에는 關元俞가 없으나 注에서 보충하였다. 『鍼灸逢源』에는 漏落된穴이 없다.

(4) 承扶, 殷門, 浮郤, 委陽, 委中

分寸歌의 經絡순서에서 『經絡考』에서만 承扶·浮郤·委陽·殷門·委中이고, 기타 서적에서는 모두 承扶·殷門·浮郤·委陽·委中の 순서이다.

殷門·浮郤·委陽의 穴位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 表 7.과 같다. 殷門은 承扶下旁6寸 또는 7寸(『鍼灸神書』)으로 거의 동일한 부위로 설명되고 있다.

	『鍼灸聚英』 『針灸問對』	『經絡考』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鍼灸神書』
殷門	承扶下6寸	承扶下6寸	承扶下6寸	承扶下6寸	承扶下7寸
浮郤	委陽上1寸	承扶下6分	殷門外斜上1寸	殷門外斜上1寸	承扶下5寸
委陽	却與殷門並 膈中外廉兩筋鄉	扶下寸六	承扶下六寸 從郤內斜並殷門	還下並殷門	二穴近委陽

表 7. 殷門·浮郤·委陽의分寸

pp.75-76.

68)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87.

6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77.

70)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112-113.

7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p.94-95.

72) 『金鍼秘傳』,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의 背部橫寸法에 공통으로 “橫寸用中指同身寸法, 脊骨內關一寸, 凡云第二行夾脊一寸半, 三行夾脊三寸者, 皆除脊一寸外, 淨以寸半, 三寸論. 故在二行, 當爲二寸. 在三行, 當爲三寸半”이라 하였다.

73) 『凌門傳授銅人指穴』에서는 누락된 혈들을 모두 보충하였다.

74) 『經絡匯編』과 『金針秘傳』에도 없다.

浮郄과 委陽의 부위는 『經絡考』에서는 承扶 아래 6분이 浮郄이고 浮郄 아래 1寸이 委陽으로 되어 있고, 『鍼灸神書』를 제외한 나머지 서적에서는 股門과 나란히 있는 부위를 委陽이라 하였으며 더불어 『經絡考』와 『刺灸心法要訣』에서는 承扶下6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⁷⁵⁾. 그리고 浮郄은 委陽上1寸 또는 股門 바깥으로 비스듬히 1寸 위쪽으로 설명한 것 또한 동일하다. 『鍼灸神書』에서도 分寸에 약간의 차이⁷⁶⁾가 있지만 비슷한 의미로 설명되어 있다.

『鍼灸學』⁷⁷⁾에서는 ‘承扶와 委中間의 骨度法을 1尺 2寸으로 하여 承扶와 委中 正중앙(承扶下6寸)이 股門이며 委中外傍2寸이 委陽, 그리고 委陽에서 股門 방향으로 委陽上1寸이 浮郄’라고 하였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⁷⁸⁾에서는 承扶와 委中間 骨度法을 1尺4寸으로 하여 股門을 承扶下6寸으로 하였다. 나머지는 『鍼灸學』과 동일하다.

이상에서 股門·浮郄·委陽의 穴位는 分寸歌에 기재된 것과 『鍼灸學』 등에 쓰여진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鍼灸大成』⁷⁹⁾에서 “委陽, 承扶下六寸, 在足太陽之前少陽之後, 出於膕中外廉兩筋間, 三焦下輔俞, 足太陽之別絡.”이라 하였고, 『醫學入門』⁸⁰⁾에서 “委陽, 膝腕橫紋尖, 外廉兩筋間, 委中外二寸, 屈身取之”라 하였으며, 『類經圖翼』⁸¹⁾에서 “委陽, 在承扶下六寸, 屈身取之.”라 하고, 『黃帝明堂經輯校』⁸²⁾에서 “委

陽, 三焦下輔俞也. 在足太陽之前, 少陽之後, 出於膕中外廉兩筋間, 承扶下六寸, 此足太陽之別絡.”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醫學入門』은 『鍼灸學』과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의 내용과 같으나 다른 서적의 내용은上記 分寸歌들의 내용과 동일하다. 앞으로 이와 같은 차이점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合陽

委中과 合陽 사이의 分寸에는 2寸과 3寸의 견해 차이⁸³⁾가 있다.

(6) 附陽-金門 사이의 經穴순서의 차이

『鍼灸聚英』에서는 附陽·金門·崑崙·僕參·申脈·京骨, 『鍼灸問對』에서는 附陽·金門·申脈·崑崙·僕參·申脈·京骨, 『經絡考』·『刺灸心法要訣』·『鍼灸逢源』에서는 附陽·崑崙·僕參·申脈·金門·京骨, 『鍼灸神書』에서는 附陽·崑崙·僕參·金門·申脈·京骨 등으로 차이가 있다.

8) 足少陰腎經

(1) 復溜·交信의 分寸

復溜와 交信은 모두 踝上2寸의 穴이며 筋을 사이에 두고 前後에 있다. 『鍼灸逢源』에서는 前後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며, 『鍼灸聚英』·『鍼灸問對』에서는 ‘交信在前’, ‘復溜在後’라 하였고, 『經絡考』·『刺灸心法要訣』·『鍼灸神書』에서는 ‘復溜在前’, ‘交信在後’의 견해를 밝혔다.

『鍼灸學』⁸⁴⁾에서는 ‘足內踝上2寸, 太谿穴直上2寸, 交信穴後5分…脛骨側으로 交信穴을 정하고, 後方5分으로 腓骨側에 復溜穴을 정한다…(참고로 足內踝上2寸에 復溜在前 交信在後로 취하는 법도 있다)’고 하였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⁸⁵⁾ 도 『鍼灸學』과 같다.

75)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66. 足太陽膀胱經 經穴主治에서 ‘委陽 承扶下一尺六寸’이라 하였다. 그러나 上記한 分寸歌의 의미는 이것과는 다르게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76) 無名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承扶下5寸 浮郄, 浮郄下2寸 股門, 浮郄과 股門 近處에 委陽”이라고 하였다.

77)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143-146.

78)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p.117-119.

79) 楊繼洲. 原本鍼灸大成. 서울. 침코리아. 2002. p.256.

80) 李梴. (新校編註)醫學入門(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62.

81)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151.

82) 黃龍祥. 黃帝明堂經輯校.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8. p.235.

83) 『鍼灸問對』와 『鍼灸神書』에서는 2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에서는 3寸으로 되어 있다.

84)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173-174.

	『鍼灸聚英』	『針灸問對』	『經絡考』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橫骨	肓俞下5寸	肓俞下5寸	肓俞下5寸	肓俞下5寸	肓俞下5寸
大赫	肓俞下4寸	肓俞下4寸	肓俞下4寸	肓俞下4寸	肓俞下4寸
氣穴	肓俞下3寸	肓俞下3寸	肓俞下3寸	肓俞下3寸	肓俞下3寸
四滿	肓俞下2寸	肓俞下2寸	肓俞下2寸	肓俞下2寸	肓俞下2寸
中注	肓俞下1寸	肓俞下1寸	肓俞下1寸 各開中中行1寸5分	肓俞下1寸 中行旁開5分	肓俞下1寸
肓俞	夾臍	夾臍	臍傍5分	臍傍5分	臍傍5分
商曲			肓俞上1寸	(肓俞上行二寸)	肓俞上2寸
石關	商曲上1寸	商曲上1寸	肓俞上2寸	商曲上1寸	肓俞上3寸
陰都	商曲上2寸	商曲上2寸	肓俞上3寸	商曲上2寸	肓俞上4寸
通谷	商曲上3寸	商曲上3寸	肓俞上4寸	商曲上3寸	肓俞上5寸
幽門	商曲上4寸	商曲上4寸	肓俞上5寸	商曲上4寸	肓俞上6寸5分
	幽門中行半寸	幽門中行1寸半	各開中行5分	各開中行5分	以上開中5分

表 8. 腎經의 腹部橫寸

	『鍼灸聚英』	『針灸問對』	『經絡考』,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鍼灸神書』
外關	腕上2寸	腕上2寸	腕上2寸	腕上2寸
支溝	腕上3寸	腕上3寸	腕上3寸	腕上3寸
會宗	腕上3寸	腕上4寸	腕上3寸	腕上3寸
三陽絡	肘前5寸	肘前5寸	腕上4寸	無分寸
四瀆	並三陽絡	並三陽絡	肘前5寸	無分寸

表 9. 外關, 支溝, 會宗, 三陽絡, 四瀆의 分寸

(2) 橫骨-幽門

表 8.과 같이 腎經의 腹部橫寸은 『經絡考』에서는 臍下 즉 橫骨·大赫·氣穴·四滿·中注까지는 任脈傍 1寸半이며, 臍上에서 脇下 즉 肓俞·商曲·石關·陰都·通谷·幽門 까지는 任脈傍5分으로 되어 있다. 『鍼灸問對』에서는 臍上下에 관계없이 任脈傍1寸5分, 기타 서적에서는 臍上下 모두 任脈傍5分으로 되어 있다.

直寸에 있어서는 『鍼灸逢源』과 『刺灸心法要訣』注에는 肓俞와 商曲 사이의 거리가 '2寸'으로 되어 있고, 『鍼灸逢源』에는 通谷과 幽門 사이가 '1寸半'으로 되어 있다. 『經絡考』에서는 肓俞와 商曲 사이의 거리가 '1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외의 서적에서는 分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타 이외의 經穴 사이의 分寸은 모두 1寸으로 되어 있다.

『鍼灸學』⁸⁶⁾,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⁸⁷⁾에서는 橫寸으로는 任脈傍5分, 直寸으로는 肓俞와 商曲 사이의 分寸만 2寸이고 나머지는 모두 一寸으로 되어 있으니 『刺灸心法要訣』과 동일하다.

9) 手厥陰心包經

分寸歌의 分寸에 差름이 없다.

10) 手少陽三焦經

(1) 外關·支溝·會宗·三陽絡·四瀆의 分寸

表 9.와 같이 會宗·三陽絡·四瀆에 대한 分寸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고, 肘腕의 骨度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分寸歌들을 비교해 보면 肘腕10寸의 骨度法이 적용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鍼灸學』⁸⁸⁾, 『WHO STANDARD ACUPUNCTURE

8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139.

86)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176-182.

8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p.141-146.

88)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202-205.

POINT LOCATIONS』⁸⁹⁾에서는 肘尖間(天井)-腕關節 사이의分寸을 12寸으로 하는 骨度法으로 外關·支溝·會宗·三陽絡·四瀆 각각의 穴位를 腕上2寸·3寸·3寸·4寸·5寸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鍼灸學』에서는 肘尖下-腕關節의分寸을 10寸으로 하는 骨度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2) 淸冷淵

『鍼灸神書』에서만 ‘肘上3寸’이라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肘上2寸’이라 하였다.

(3) 角孫·耳門·禾膠·絲竹空 경혈순서의 차이

『鍼灸聚英』, 『鍼灸問對』는 角孫·絲竹空·禾膠·耳門의 순서로 되어 있고, 『經絡考』,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은 角孫·耳門·禾膠·絲竹空의 순서로 되어 있다.

11) 足少陽膽經

(1) 頷厭·懸顛·懸厘

腦空, 顛顛, 太陽은 모두 曲角의 의미로 쓰였는데 曲角上廉의 下部가 頷厭, 曲角의 中央部가 懸顛, 曲角下廉의 上部가 懸厘이다. 또한 曲角端, 太陽端, 太陽之中은 모두 曲角中央部位의 의미이다. 分寸歌 모두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

(2) 率谷에서 風池까지의 經穴순서 차이

『鍼灸聚英』, 『鍼灸問對』는 率谷·本神·陽白·臨泣·目窗·正營·承靈·天衝·浮白·竅陰·完骨·腦空·風池의 순서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서적은 率谷·天衝·浮白·竅陰·完骨·本神·陽白·臨泣·陽穴·目窗·正營·承靈·腦空·風池의 순서로 되어 있다.

(3) 天衝

『鍼灸聚英』은 ‘耳上2寸’, 『鍼灸問對』는 ‘耳上3寸’, 『經絡考』는 ‘耳後入髮際(上)2寸’, 『刺灸心法要訣』은 ‘耳後斜2寸’, 『鍼灸逢源』은 ‘耳後髮際’라고 하여 약간씩 차이가 있다.

『鍼灸學』⁹⁰⁾에는 ‘耳後髮際2寸에서 후방으로 약 2분

處’, ‘率谷後上方 5分處’라고 하였고,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⁹¹⁾에서는 ‘耳介根(auricular root) 髮際上2寸, 率谷後方5分’이라 하였다.

(4) 本神

直寸은 『經絡考』에서는 ‘入髮際1寸’이라 하였고, 『鍼灸逢源』에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기타 나머지 서적에서는 ‘入髮際4分’이라 하였다.

橫寸은 『鍼灸聚英』에서는 ‘曲差(校勘)之旁1寸’이라 하였고, 기타 나머지 서적에서는 ‘曲差之旁1寸5分(神庭旁3寸)’⁹²⁾이라 하였다.

『鍼灸學』⁹³⁾,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⁹⁴⁾에서는 ‘入髮際5分, 神庭旁3寸’으로 되어 있다.

(5) 陽穴

『經絡考』에는 ‘髮上1寸當陽穴’이라 하여 다른 서적에는 없는 ‘陽穴’을 언급하고 있다. 『鍼灸學』⁹⁵⁾의 奇穴編에 ‘入後髮際1寸7分’이라 되어 있다.

(6) 臨泣·目窗·正營·承靈·腦空의 分寸

表 10.에서처럼 穴 사이의 上下의 分寸 차이가 매우 많다.

『鍼灸學』⁹⁶⁾에서는 각각 ‘入髮際5分·後方1寸5分·後方1寸5分·後方1寸5分·後方4寸5分(玉枕骨下陷中)’으로 되어 있어 『鍼灸逢源』과 같다.

文堂. 2008. p.227.

9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176.

92) 『經絡考』, 『金鍼秘傳』에서 ‘神庭旁2寸’이라 하였으나, 『經絡考』의 膽經【비교 및 고찰】에서 ‘神庭旁3寸’이 옳다고 하였다.

93)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230.

94)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178.

95)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355.

96)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231-233.

8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p.160-162.

90)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

	『鍼灸聚英』	『針灸問對』	『經絡考』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臨泣	髮上5分	髮上5分	髮上5分	髮上5分	髮上5分
目窗	下1寸	下1寸	下1寸	下1寸半(注:1寸)	下1寸半
正營	下1寸	下1寸	下1寸	下1寸半	下1寸半
承靈	下1寸半	下5寸	下1寸半	下1寸半	下1寸半
腦空	夾玉枕骨	夾玉枕骨	下1寸半	下1寸半	枕骨下

表 10. 臨泣, 目窗, 正營, 承靈, 腦空의分寸

	『鍼灸聚英』	『針灸問對』	『經絡考』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淵腋	腋下3寸	腋下3寸	腋下3寸	腋下3寸	腋下3寸
輒筋	平前1寸	平前1寸	(向)期門5分	前1寸	向前平乳中
日月	期門在2肋端 期門下5分	(向)期門1寸5分 期門下5分	期門下5分	(期門)乳下2肋 (期門)下行5分	期門下5分
(肝經) 期門	乳旁一寸, 直下2寸肋	乳根外1寸5分 直下5分, 2肋	巨闕旁4寸5分	直乳二肋端(不容旁1寸5分)	乳下二肋端

表 11. 淵腋, 輒筋, 日月的分寸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⁹⁷⁾에는 ‘5分·1寸·1寸·1寸5分·外後頭隆起頂點上廉旁’으로 되어 있어 『鍼灸聚英』과 같다.

(6) 淵腋·輒筋·日月

淵腋은 ‘腋下3寸’으로 모두 동일하다.

輒筋은 淵腋과 평행하게 앞쪽 1寸(『鍼灸聚英』·『鍼灸問對』·『刺灸心法要訣』), 期門을 향해서 5分(『經絡考』), 乳中을 향해서 앞쪽(『鍼灸逢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日月은 모든 서적에서 ‘期門下5分’이라 하였다. 다만 表 11.처럼 期門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

『鍼灸學』⁹⁸⁾에는 淵腋은 腋下3寸, 輒筋은 淵腋前1寸·乳中外方3寸, 日月은 期門穴(巨闕傍3寸5分), 下5分(乳頭下7·8肋骨間)으로 되어 있어 『經絡考』·『刺灸心法要訣』·『鍼灸逢源』과 비슷하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⁹⁹⁾ 는 『鍼灸學』과 동일한 의미로 기재

되어 있다.

(7) 京門

『刺灸心法要訣』에서만 ‘臍上5分, 傍9寸5分’의分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서적에서는 ‘監骨腰間’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鍼灸學』¹⁰⁰⁾에는 ‘第12肋骨端, 章門外斜下方, 1寸6分, 臍上1寸(水突穴)傍8寸, 第1腰椎棘突起 수평선과 腋中線이 만나는 점에서 외측 1/3되는 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¹⁰¹⁾에는 ‘第12肋骨下端’으로 되어 있다.¹⁰²⁾

(8) 協堂

『凌門傳授銅人指穴』와 『鍼灸問對』에만 기재되어 있고, 기타 서적에는 없다.

9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p.179-181.

98)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236-237.

9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p.182-183.

100)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238.

10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184.

102) 章門은 ‘第11肋骨下端’으로 되어 있다.

『鍼灸學』¹⁰³의 奇穴編에는 ‘腋窩下2寸’으로 되어 있다.

(9) 風市

『鍼灸聚英』에는 ‘風市’가 없다. 『鍼灸神書』에서는 ‘外膝上5寸’으로 되어 있고 기타 서적에서는 分寸에 대한 설명이 없다.

『鍼灸學』¹⁰⁴에서는 ‘膝蓋骨 外側上 7寸(髀樞에서 膝中까지 19寸의 骨度法)’으로 되어 있다. 膝中에서 계산하면 膝中上9寸이 된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¹⁰⁵에서는 『鍼灸學』과 같은 骨度法으로 中瀆은 ‘外側膝中上7寸’으로 되어 있고, 風市는 ‘손을 내렸을 때 중지의 끝이 닿는 곳’으로 되어 있다. 『鍼灸學』와 결국 동일한 의미가 된다.

(10) 中瀆

『鍼灸神書』에는 ‘膝上3寸’으로 되어 있고, 기타 서적에는 모두 ‘膝上5寸’으로 되어 있다.

『鍼灸學』¹⁰⁶에는 ‘膝蓋骨外側上緣5寸, 風市穴下2寸’이라 하였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¹⁰⁷에서는 ‘外側膝中上7寸’으로 되어 있다.

(11) 陽陵泉

『鍼灸問對』에는 ‘膝下2寸’으로 되어 있고, 기타 서적에는 모두 ‘膝下1寸’으로 되어 있다.

『鍼灸學』¹⁰⁸에는 ‘膝蓋骨下 外側1寸’이라 하였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¹⁰⁹에서는 分寸에 대한 언급은 없다.

(12) 外丘

『經絡考』·『鍼灸逢源』에는 ‘足踝上6寸’으로 되어 있고, 기타 서적에는 ‘踝上7寸’으로 되어 있다.

『鍼灸學』¹¹⁰·『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¹¹¹에는 ‘踝上7寸’으로 되어 있다.

12) 足厥陰肝經

(1) 五里·陰廉·羊矢·急脈의 分寸

『鍼灸逢源』에는 羊矢에 대한 언급이 없고, 『刺灸心法要訣』·『鍼灸神書』에서는 羊矢의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急脈은 『刺灸心法要訣』·『鍼灸逢源』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表 12.처럼 모두 胃經의 氣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直寸은 각 分寸歌들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고, 橫寸은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鍼灸學』¹¹²은 『刺灸心法要訣』·『鍼灸逢源』과 같다.

‘五里는 急脈穴 內方5分에 있는 氣衝穴(曲骨穴 兩方2寸)下3寸, 陰廉은 氣衝穴下2寸, 急脈은 陰器之傍 2寸5分(氣衝穴外傍5分 즉 曲骨穴兩方2寸5分), 羊矢는 經外奇穴¹¹³로 腹股溝內端, 恥骨結節의 高點處’으로 되어 있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¹¹⁴는 『鍼灸學』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만, 羊矢에 대한 언급은 없다.

103)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364.
104)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242-243.
10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187.
106)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243.
10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187.
108)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244.

10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188.
110)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246.
11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189.
112)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p.263-262.
113)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382.
114)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p.200-201.

	『鍼灸聚英』	『針灸問對』	『經絡考』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鍼灸神書』
五里	氣衝內1寸5分, 下3寸 (능;羊矢裏3分下方)	氣衝內5分, 下3寸	氣衝下3寸	氣衝下3寸	氣衝下3寸	氣衝下3寸
陰廉	在橫紋脰	羊矢下 氣衝相去2寸	氣衝下2寸	氣衝下2寸	氣衝下2寸	羊矢下 氣衝相去2寸
羊矢	능)氣衝旁1寸	氣衝旁1寸	氣衝下1寸	없음	없음	없음
急脈	없음	없음	없음	毛際旁2寸5分	毛際系牽丸	없음
(胃經) 氣衝	氣衝脈中央 (曲骨傍3寸)	鼠上脈處 (曲骨傍3寸)	鼠溪上1寸 (曲骨傍4寸)	鼠溪上1寸脈處 (曲骨傍2寸)	臍下5寸 (曲骨傍2寸)	없음

表 12. 五里, 陰廉, 羊矢, 急脈의分寸

	『鍼灸聚英』	『針灸問對』,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經絡考』
章門	下脘傍8寸	下脘傍6寸	下脘傍9寸

表 13. 章門의分寸

	『鍼灸聚英』	『針灸問對』	『經絡考』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期門	乳傍1寸 直下2寸(乳下)2肋	乳根外1寸5分 直下半寸(乳下)2肋	巨闕傍4寸5分	乳2肋端, 不容穴旁一寸五分	乳下2肋端

表 14. 期門의分寸

(2) 章門

表 13.처럼 橫寸에는 차이가 있다.

『鍼灸學』¹¹⁵⁾에는 ‘下脘傍6寸, 제11肋骨端’으로 되어 있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¹¹⁶⁾에는分寸에 대한 언급이 없고, ‘11肋骨端’이라 하였다.

3) 期門

表 14.처럼 直寸은 모두 乳下2肋으로 동일하다. 다만 橫寸에 있어서 『鍼灸聚英』, 『鍼灸問對』, 『經絡考』는 乳外傍 1寸·1寸5分·5分으로 되어 있고,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은 乳下로 되어 있다.

『鍼灸學』¹¹⁷⁾에서는 ‘巨闕穴 兩方3寸5分으로 乳下2肋 제7·8肋間’이라 하여 『刺灸心法要訣』의 견해를 따

르고 있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¹¹⁸⁾에서는 ‘任脈旁4寸 7肋間, 즉 不容旁2寸’이라 하였다.

III. 要約

1. 『鍼灸聚英』, 『凌門傳授銅人指穴』과 『經絡考』, 『經絡匯編』, 『金針秘傳』는 각각 동일한 내용이다.

1) 『鍼灸聚英』과 『凌門傳授銅人指穴』에서分寸이 다른 穴位는 3곳이고, 經穴의 순서가 다른 곳이 2곳이다. 經穴이 漏落된 것은 모두 『鍼灸聚英』이었다. 따라서 두 서적은 동일한 서적을 底本으로 삼았거나, 『凌門傳授銅人指穴』이 『鍼灸聚英』을 底本으로 하여 누락된 경혈을 보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經絡考』와 『經絡匯編』, 『金針秘傳』에서分寸이

115)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264.

11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202.

117)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265.

118)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202.

다른 穴位는 2곳이고, 經穴의 순서가 다른 곳은 없다. 經穴이 漏落된 것은 『經絡考』, 『經絡匯編』에 1곳이 있다. 또한 誤記가 『經絡考』에 많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經絡考』, 『經絡匯編』과 『經絡考』, 『金針秘傳』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다. 또한 ‘陽穴’이라는 奇穴이 세 서적에 공통으로 들어간 것을 보건데 세 서적은 동일한 서적을 底本으로 삼았거나, 『經絡匯編』이 『經絡考』를, 『金針秘傳』이 『經絡考』과 『經絡匯編』을 底本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十二經脈의 分寸歌의 내용을 분석하여 經穴의 기재순서, 經穴의 漏落이나 보충, 적용된 骨度法의 차이 등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1) 經穴의 기재순서에 차이가 있다.

(1) 『鍼灸神書』에서는 經穴의 기재순서가 모두 四肢端에서 體幹방향으로 되어 있고, 또한 體幹의 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서적에서는 모두 十二經脈의 流注順序를 따르고 있다.

經脈의 流注에 대한 내용인 循行歌는 모든 서적에서 循環脈系를 따르고 있으나, 經穴의 名稱이나 위치에 대한 내용인 經穴歌·分寸歌는 向心脈系 또는 循環脈系로 서술형식이 나뉘어 있다.

『鍼灸神書』에는 循行歌가 없으며 經穴歌는 手太陰肺經의 中府에서 시작하여 如環無端하게 四肢와 體幹을 서로 循環하여 足厥陰肝經의 期門으로 끝나는 서술형식을 따르고 있고, 分寸歌는 四肢端에서 體幹방향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형식의 차이점은 向心脈系, 循環脈系(또는 一方的 經脈流注, 循環的 經脈流注)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胃經 中の 기재순서 차이

『鍼灸問對』와 『凌門傳授銅人指穴』에서는 ‘頭維·下關·頰車·承泣·四白·巨膠·地倉·大迎·人迎’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외의 서적에서는 ‘承泣·四白·巨膠·地倉·大迎·頰車·下關·頭維·人迎’의 순서로 되어 있다.

(3) 膀胱經 中の 기재순서 차이

『經絡考』에서만 ‘承扶·浮郄·委陽·殷門·委中’의 순서로 되어 있고, 기타 서적에서는 모두 ‘承扶·殷門·浮郄·委陽·委中’의 순서로 되어 있다.

(4) 腎經 中の 기재순서 차이

『鍼灸聚英』에서는 ‘附陽·金門·崑崙·僕參·申脈·京骨’, 『鍼灸問對』에서는 ‘附陽·金門·申脈·崑崙·僕參·申脈·京骨’, 『經絡考』,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에서는 ‘附陽·崑崙·僕參·申脈·金門·京骨’, 『鍼灸神書』에서는 ‘附陽·崑崙·僕參·金門·申脈·京骨’ 등으로 되어 있다.

(5) 三焦經 中の 기재순서 차이

『鍼灸聚英』, 『鍼灸問對』에서는 ‘角孫·絲竹空·禾膠·耳門’의 순서로 되어 있고, 『經絡考』,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에서는 ‘角孫·耳門·禾膠·絲竹空’의 순서로 되어 있다.

(6) 膽經 中の 기재순서 차이

『鍼灸聚英』, 『鍼灸問對』는 ‘率谷·本神·陽白·臨泣·目窗·正營·承靈·天衝·浮白·竅陰·完骨·腦空·風池’의 순서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서적은 ‘率谷·天衝·浮白·竅陰·完骨·本神·陽白·臨泣·陽穴·目窗·正營·承靈·腦空·風池’의 순서로 되어 있다.

2) 書籍마다 經穴이 누락되거나 보충된 차이점이 있다.

(1) 방광1선(大杼-白環俞)의 漏落穴

『鍼灸聚英』에는 ‘督俞·氣海俞·關元俞’가 없다.

『針灸問對』에는 ‘膀胱俞·中膂俞·白環俞’가 없다.

『經絡考』에는 ‘督俞·氣海俞·關元俞’가 없다.

『刺灸心法要訣』에는 ‘關元俞’가 없으나 注에서 보충하였다.

『鍼灸逢源』에는 漏落된 穴이 없다.

(2) 기타 經脈의 漏落 또는 補充된 穴

『凌門傳授銅人指穴』와 『鍼灸問對』에서만 ‘脇堂’을 언급하고 있다.

『鍼灸逢源』에서만 ‘眉衝’을 언급하고 있다.

『經絡考』에서만 ‘陽穴’을 언급하고 있다.

『鍼灸聚英』에는 ‘風市’가 없다.

『針灸問對』에는 ‘解谿’가 없다.

『鍼灸逢源』에는 ‘羊矢’에 대한 언급이 없고, 『刺灸心法要訣』·『鍼灸神書』에서는 ‘羊矢’의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刺灸心法要訣』·『鍼灸逢源』에서만 ‘急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 骨度法の 적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

(1) 大腸經 中에 ‘陽谿-曲池’까지의 骨度法 적용이 다르다.

『鍼灸問對』·『金鍼秘傳』·『刺灸心法要訣』·『鍼灸逢源』에서는 ‘肘至腕, 長一尺二寸半’의 骨度法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鍼灸聚英』에서는 ‘肘至腕, 長一尺一寸半’의 骨度法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鍼灸學』에서는 ‘陽谿穴에서 曲池穴까지 10寸’의 骨度法을 적용하였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에는 ‘肘腕12寸’의 骨度法을 적용하였다.

(2) 脾經 中에 ‘商丘-陰陵泉(膝)’까지의 骨度法 적용이 다르다.

모든 서적에서 ‘膝以下에서 外踝까지 16寸’의 骨度法이 적용되었다.

『鍼灸學』·『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에서는 ‘足內輔骨下廉에서 足內踝까지 1尺3寸’의 骨度法이 적용되었다.

(3) 三焦經 中에 ‘外關-四瀆(肘)’까지의 骨度法 적용이 다르다.

모든 서적에서 ‘肘腕 사이 10寸’의 骨度法을 적용하였다.

『鍼灸學』·『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에서는 ‘肘尖間(天井)-腕關節 사이 12寸’의 骨度法을 적용하였다.

4) 구조적인 특징으로 경혈 부위를 설명한 경우에는 각 서적간의分寸의 차이가 여러 곳에 나타난다.

(1) 頸部는分寸으로 穴位를 설명하는 것 보다는 구조적인 특징으로 하는 것이 더욱 명확하다.

‘天鼎과 扶突’, ‘水突과 氣舍’, ‘天窓과 天容’, ‘天牖와 翳風’ 등의 頸部의 經穴位는分寸으로 설명된 경우에는分寸이 의미하는 부위가 매우 애매하다. 오히려 각 經脈의 流注路線과 頸大筋의 前後間 그리고 結喉橫線에 따른 上下 부위로 설명한 것이 더욱 명확해 보인다.

(2) 面部와 四肢末端의 經穴에서도分寸보다는 구조적인 특징에 의한 서술이 많으며 이것으로 인해分寸의 차이가 여러 곳에 나타난다.

5) 胸腹部의分寸은任脈을 중심으로 橫寸과 直寸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直寸에 대한分寸의 차이는 많지 않으나, 橫寸에 대한 견해 차이는 매우 분명하다.

(1) 肺經의 中府와 雲門 사이의 直寸은任脈의 ‘華蓋와 璇璣의 直寸’에 의거하여 2가지 견해로 나뉜다.

『鍼灸聚英』·『鍼灸問對』·『經絡考』에서는 ‘1寸’으로 되어 있다.

『刺灸心法要訣』·『鍼灸逢源』에서는 ‘1寸6分’으로 되어 있다.

『鍼灸學』에서는 ‘1寸6分’으로 되어 있으나 圖解上으로는 ‘1寸’으로 되어 있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에서는 ‘1寸’으로 되어 있다.

胸部의 穴位에 속하는 胃經의 氣戶·庫房·屋翳·膺窗·乳中·乳根, 脾經의 食竇·天溪·胸鄉·周榮 그리고 腎經의 步廊·神封·靈墟·神藏·或中·俞府 등의 上下分寸이 모든分寸歌에서 동일하게 1寸6分으로 되어있는 것은 肋骨를 중심으로 하여 각 肋骨 사이의分寸을 1寸6分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中府와 雲門은任脈의 華蓋와 璇璣에 맞추어分寸이 계산되어졌기에任脈의胸部穴位에 대한 각 서적들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1寸과 1寸6分이라는 두 가지의分寸으로 나뉜 것이다. 따라서 中府와 雲門 사이는 하나의 肋骨 차이가 있으므로分寸을 1寸6分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명확해 보인다.

(2) 腎經의 腹部橫寸은 3가지 견해가 있다.

『經絡考』에서 臍下는 ‘任脈傍1寸半’이며, 臍上은 ‘任脈傍5分’으로 되어 있다.

『鍼灸問對』에서는 ‘任脈傍1寸5分’으로 되어 있다.

기타 서적에서는 ‘任脈傍5分’으로 되어 있다.

『鍼灸學』·『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에서는 ‘任脈傍5分’으로 되어 있다.

(3) 胃經의 腹部橫寸은 2가지 견해가 있다.

『鍼灸聚英』·『刺灸心法要訣』·『鍼灸逢源』은 ‘任脈旁2寸’으로 되어 있다.

『鍼灸問對』·『經絡考』는 臍下에서는 다른 서적과 동일한 ‘任脈旁2寸’으로 되어 있으나 臍上에서는 ‘任脈旁3寸’으로 되어 있다.

『鍼灸學』·『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에는 ‘任脈旁3寸’으로 되어 있다.

(4) 胃經의 氣衝은 ‘曲骨旁4寸’, ‘3寸’, ‘2寸’ 등의 3가지 견해가 있다.

『鍼灸學』·『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에서는 ‘曲骨穴旁2寸’으로 되어 있다.

(5) 胃經의 臍下部 直寸은 각 서적의 骨度法을 따르지 않고 실용적인 分寸法을 따르고 있다.

胃經의 臍下腹部의 6穴에 대한 각각 서적의 直寸은 각 서적의 骨度法을 『鍼灸逢源』만 정확하게 따르고 있을 뿐 기타 서적에서는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것은 任脈 및 腎經·脾經의 臍下 經穴들이 정확히 骨度法(臍-曲骨 5寸)을 따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즉 胃經의 臍下에서 橫骨까지의 分寸이 서적마다 ‘8寸’ 또는 ‘6寸5分’, ‘5寸’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骨度法의 의미가 절대적 數值가 아니라 정확한 穴位를 取하는 것이 목적임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鍼灸逢源』의 기재 내용은 『鍼灸學』에서 적용하고 있는 骨度法(臍-曲骨 5寸)과 동일하다. 이는 分寸歌

중에서 가장 후대의 서적으로 任脈의 ‘陰交·石門·關元·中極·曲骨旁2寸’으로 맞추어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6) 脾經의 腹部橫寸은 3가지 견해가 있다.

『鍼灸聚英』·『鍼灸問對』에서는 ‘夾臍’라고만 하여 구체적인 分寸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經絡考』注에서는 ‘臍傍4寸5分’으로 되어 있다.

『刺灸心法要訣』·『鍼灸逢源』에서는 ‘臍傍3寸5分’으로 되어 있다.

『鍼灸學』·『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에는 ‘臍旁4寸’으로 되어 있다.

6) 分寸의 견해차이가 매우 큰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肝經의 期門은 直寸은 모두 ‘乳下 두 번째 肋骨’로 동일하지만, 橫寸은 차이가 매우 크다.

『鍼灸聚英』는 ‘乳外傍1寸’으로 되어 있다.

『鍼灸問對』는 ‘乳外傍1寸5分’으로 되어 있다.

『經絡考』는 ‘乳外傍5分’으로 되어 있다.

『刺灸心法要訣』은 ‘乳下2肋, 巨關旁3寸5分’으로 되어 있다.

『鍼灸逢源』은 ‘乳下2肋’으로만 되어 있다.

『鍼灸學』에서는 ‘巨關穴 兩方3寸5分으로 乳下2肋 제7·8肋間’이라 하였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에서는 ‘任脈旁4寸 7肋間, 즉 不容旁2寸’이라 하였다.

(2) 脾經의 腹衰

『鍼灸聚英』·『針灸問對』에서는 ‘日月去一寸半’이라 하였는데 日月은 期門下5分이므로 ‘期門下5分, 外傍1寸5分’, 또는 ‘期門下2寸’이 된다

『經絡考』에서는 ‘期門下方2寸’이라 하였다.

『刺灸心法要訣』에서는 ‘大橫上3寸5分’이라 하였다. 곧 期門下3寸이 된다.

『鍼灸逢源』에서는 ‘巨關傍6寸’이라 하였다.

『鍼灸學』·『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에서는 ‘建里(任脈, 臍上3寸) 兩方各4寸’이라 하였다.

(3) 胃經의 箕門

分寸歌에서는 ‘血海上6寸’ 또는 分寸은 기재하지 않고 筋肉 및 動脈處로 설명하였다.

『鍼灸學』에서는 ‘血海上6寸(膝臏上8寸)’으로 기재되어 있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에서는 筋肉 및 動脈處로 설명하고 있으며 圖解上으로는 ‘膝臏上12寸’으로 규정하여 여러 分寸歌 및 『鍼灸學』와는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4) 膀胱經의 承扶·殷門·浮郤·委陽·委中

殷門은 承扶下旁6寸 또는 7寸(『鍼灸神書』)으로 거의 동일한 부위로 설명되고 있다.

浮郤과 委陽의 부위는 『經絡考』에서는 承扶 아래 6분이 浮郤이고 浮郤 아래 1寸이 委陽으로 되어있고, 『鍼灸神書』를 제외한 나머지 서적에서는 殷門과 나란히 있는 부위를 委陽이라 하였으며 더불어 『經絡考』와 『刺灸心法要訣』에서는 承扶下6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浮郤은 委陽上1寸 또는 殷門 바깥으로 비스듬히 1寸 위쪽으로 설명한 것 또한 동일하다. 『鍼灸神書』에서도 分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의미로 설명되어 있다.

『鍼灸學』에서는 ‘承扶와 委中間의 骨度法을 1척2寸으로 하여 承扶와 委中 正중앙(承扶下6寸)이 殷門이며 委中外傍2寸이 委陽, 그리고 委陽에서 殷門방향으로 委陽上1寸이 浮郤’라고 하였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에서는 承扶와 委中間 骨度法을 1척4寸으로 하여 殷門을 承扶下6寸으로 하였다. 나머지는 『鍼灸學』와 동일하다.

이상에서 殷門·浮郤·委陽의 穴位은 分寸歌에 기재된 것과 『鍼灸學』 등에 쓰여진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腎經의 復溜·交信

復溜와 交信은 모두 踝上2寸의 穴이며 筋을 사이

에 두고 前後에 있다.

『鍼灸逢源』에서는 前後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鍼灸聚英』·『鍼灸問對』에서는 ‘交信在前, 復溜在後’라고 하였고, 『經絡考』·『刺灸心法要訣』·『鍼灸神書』에서는 ‘復溜在前, 交信在後’라 하였다.

『鍼灸學』에서는 ‘足內踝上2寸, 太谿穴直上2寸 交信穴後5分…脛骨側으로 交信穴을 정하고, 後方5分으로 腓骨側에 復溜穴을 정한다.(참고로 足內踝上2寸에 復溜在前 交信在後로 취하는 법도 있다)’고 하였다.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은 ‘交信在前, 復溜在後’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6) 膽經의 臨泣·目窗·正營·承靈·腦空

각각의 分寸歌와 『鍼灸學』 및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들의 分寸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상에서 특히 膀胱經의 殷門·浮郤·委陽의 穴位은 『鍼灸學』 및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와 동일한 分寸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鍼灸大成』, 『醫學入門』, 『類經圖翼』, 『黃帝明堂經輯校』 등의 經穴 설명에서도 『醫學入門』만이 『鍼灸學』 및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의 견해와 같고 나머지는 모두 分寸歌들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본 論考에서 언급하지 않은 각 分寸歌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와 『鍼灸學』 및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와의 비교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IV. 結論

以上으로 『針灸聚英』, 『凌門傳授銅人指穴』, 『針灸

問對』, 『經絡考』, 『經絡匯編』, 『金針秘傳』, 『刺灸心法要訣』, 『鍼灸逢源』, 『鍼灸神書』의 9가지 서적들의分寸歌를 『鍼灸學』 및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와 비교·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鍼灸聚英』·『凌門傳授銅人指穴』과 『經絡考』·『經絡匯編』·『金針秘傳』의分寸歌는大同小異하다.
2. 十二經脈의分寸歌에 있어서 胃經, 膀胱經, 腎經, 三焦經, 膽經은 그 기재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3. 아홉 가지의分寸歌에 膀胱經 제1선(大杼-白環俞)에 주로 漏落된 穴이 있으며, 그 외에 風市, 解谿, 羊矢, 急脈이 없는 것도 있으며, 正經穴 이외에 脇堂, 眉衝, 陽穴 등을 언급한 것도 있다.
4. 大腸經의 '陽谿-曲池'까지, 脾經의 '商丘-陰陵泉(膝)'까지, 三焦經의 '外關-四瀆(肘)'까지 骨度法의 적용이 『鍼灸學』 및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와 다르다.
5. 구조적인 특징으로 經穴 부위를 설명한 경우에는 각 서적간의分寸의 차이가 여러 곳에 나타난다.
6. 胸腹部의分寸은 任脈을 중심으로 橫寸과 直寸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直寸에 대한分寸의 차이는 많지 않으나 橫寸에 대한 견해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7. 아홉 가지分寸歌의 膀胱經의 殷門·浮郄·委陽의 穴位는大同小異하나 『鍼灸學』 및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와 전혀 다르다.

參考文獻

<논문>

1. 姜東允, 趙學俊, 金昊顯. 十二經脈의 循行歌와 經穴歌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2). p.50.
2. 孫光洛, 朴炫局. 經脈體系의 形成과 發展에 關한 研究. 동국한의학회연구소논문집 제6권 제1호. pp.35-66.
3. 白裕相.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關係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통권 제27호. pp.37-56.

<단행본>

1. 高武. 針灸聚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66, 224.
2.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2008. p.6, 8, 44, 84, 85, 87, 227, 230, 244, 246, 264, 265, 355, 238, 364, 382, pp.50-52, 56-59, 67-69, 79-82, 112-113, 143-146, 173-174, 176-182, 202-205, 231-233, 236-237, 242-243, 262-263.
3. 吳謙 等. 醫宗金鑑. 北京. 인민위생출판사. 1982. p.2113.
4. 吳謙 等. 刺灸心法要訣·醫宗金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92.
5. 吳國定. 內經解剖生理學. 臺北. 國立中國醫藥研究所. 年度未詳. p.5.
6. 李梴. (新校編註)醫學入門(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62.
7.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151.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79, 109.
9. 黃龍祥. 黃帝明堂經輯校. 北京. 中國醫藥科學技術出版社. 1988. p.235.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2008. p.26, 42, 48, 77, 139, 176, 178, 184, 187, 188, 189, 202, pp.52-54, 55-57, 66-67, 75-76, 94-95, 117-119, 141-146, 160-162, 179-181, 182-183, 200-201.

<기타>

1. 高武. 著. 裘沛然 編. 針灸聚英·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 吳謙 等 著. 裘沛然 編. 刺灸心法要訣·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3. 李學川 著. 裘沛然 編. 鍼灸逢源·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4. 無名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5.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6. 無名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7. 汪機 著. 裘沛然 編. 鍼灸問對·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8.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9. 翟良 著. 裘沛然 編. 經絡匯編·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